

(서식 3)

자기 소개서

소 속	○○초등학교	직 위	교감	성 명	○○○
-----	--------	-----	----	-----	-----

무녀도초등학교에 지원하면서 저에게 스스로 몇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 교직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저는 농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논밭농사는 물론이고, 누에치기, 새끼꼬기 등의 일손을 거들면서 땀과 노력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그다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꼴찌를 면치 못하는 성적이었지만 가슴속에 간직한 한결같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꿈을 실현시켜 주신 분들은 바로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칭찬으로 저에게 용기를 주셨던 6학년 담임선생님, 공부하고 싶다는 제자를 위해 기꺼이 방을 내어주셨던 고3 담임선생님은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고맙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선생님들이 바로 제 꿈을 지켜주셨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교직은 제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은 천직이며, 지난 29년 동안 사랑과 열정으로 제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선생님의 보람 속에서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무녀도초등학교 지원동기는 무엇인가?

저는 2003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 선유도초등학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 당시 선유도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 중에 조부모 또는 한부모 가정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입학 앞둔 6학년 학생 두 명은 글을 읽지 못할 정도로 학습부진이 심각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꿈과 행복을 키워주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사물놀이 지도를 통해 흥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었고 대회에 나가 입상도 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특별지도를 통해 글을 깨쳐 중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처음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힘든 인내의 시간이었지만 가르치는 행복이 충만한 시기였습니다.

무녀도초등학교는 제게 낯선 곳이 아닙니다. 선유도초등학교 근무 당시 선유교를 건너 무녀도초등학교에 여러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 때 무녀도초등학교 앞길을 지나 염전까지 걸으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녀도초등학교는 다른 도서지역 학교에 비해 가장 큰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2013년에 개원한 도서지역 유일의 병설유치원에서 맑은 눈망울을 가진 꿈나무가 자라고 있고,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높습니다. 또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새만금과 더불어 세계로 열린 희망의 지역사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곳 희망의 땅 무녀도에서 도서지역 학교운영의 모델을 만들어 미래사회를 이끌 창의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학교경영을 위해 나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1987년 초임 발령지인 고창 공음초등학교에서 교직의 첫발 내딛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직장인으로 근무하는 학교가 아닌 미래의 꿈나무를 키운다는 남다른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육자로서 가져야 할 덕목으로 열정과 사랑을 실천하였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워 교직에 적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학급을 운영할 때도 학급운영 철학을 가지고 학급약속을 정하여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착하고 바른 예절을 실천하는 어린이(기본생활 습관), 둘째, 서로 돕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어린이(공동체 의식), 셋째, 나의 사랑을 찾아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자아확립)’ 입니다. 이렇게 운영한 결과 우리 반에서는 한건의 학교폭력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성인이 된 우리 반 아이들이 커플이 되어 결혼식을 올릴 때 주례로서 다시 한 번 제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이끌어 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교감근무 4년 동안 학교를 바꾸는 키워드는 소통과 협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교장과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선생님과 학생이 모두 행복하고, 학부모도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자발적인 참여로 변화와 혁신이라는 새로운 학교문화가 형성되었고, 교육과정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 무녀도초등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도서지역의 교육환경은 여러 면에 열악합니다. 워낙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어져 있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일부 교육활동에서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면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1:1 맞춤형 수업으로 학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진로·체험학습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우며,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바른 심성을 함양하고, 독서 및 과학 탐구 활동을 통하여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도서지역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어린이를 길러낼 것입니다.

추구하고자 하는 학교상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찾아 스스로 배우고 꿈을 찾아가는 학생, 부단한 연찬과 열정, 그리고 학생에 대한 사랑으로 가르치는 보람을 찾는 교사, 참여와 협력으로 학교를 신뢰하고 지원하는 학부모’입니다. 또한 학교장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학교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긍정적 마인드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배움·꿈·사랑으로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든다는 교육비전을 가지고 ‘스스로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학교, 선생님이 사랑으로 가르치는 학교, 다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